

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 여론조사

10명 중 2명 “지지후보 바꿀 수 있다”... 선거 막판 큰 변수

40대 이하 문재인·50대 이상 박근혜

전국 지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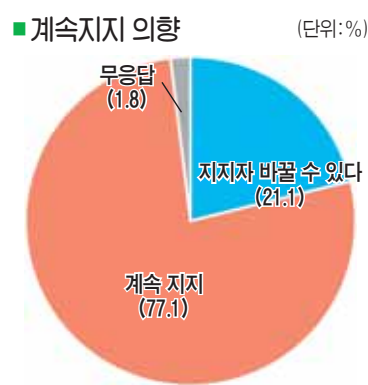
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이번 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45.3%의 지지율을 얻어 40.4%의 지지율을 보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4.9%포인트 앞섰다. 무소속 감지원 0.6%,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0.2%, 무소속 김순자 0.1% 순이었다.

하지만, 대선을 19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조사에서도 무응답 층이 13.4%에 이르고 있어 향후 부동층의 향배에 따라 대선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. 특히 응답자 10명 중 2명이 '상황에 따라 다른 후보 지지로 바꿀 수 있다'고 답변해 선거 막판 '지지후보 변동'이 선거결과의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.

▷서울·수도권 박빙=권역별로는 박근혜 후보가 광주와 전남·전북 등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문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. 다만,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(인천·경기)에서는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문 후보를 앞서는 등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서울에서는 박 후보 43.2%, 문 후보 42.2%로 1%포인트 차이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으며, 인천과 경기에서는 박 후보가 43.1%, 문 후보 40.8%로 나타났다.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층은 13.6%, 14.9%로,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층 향배가 주목된다.

박 후보는 텃밭인 대구·경북에서 68.4%의 압도적 지지를 보였고, 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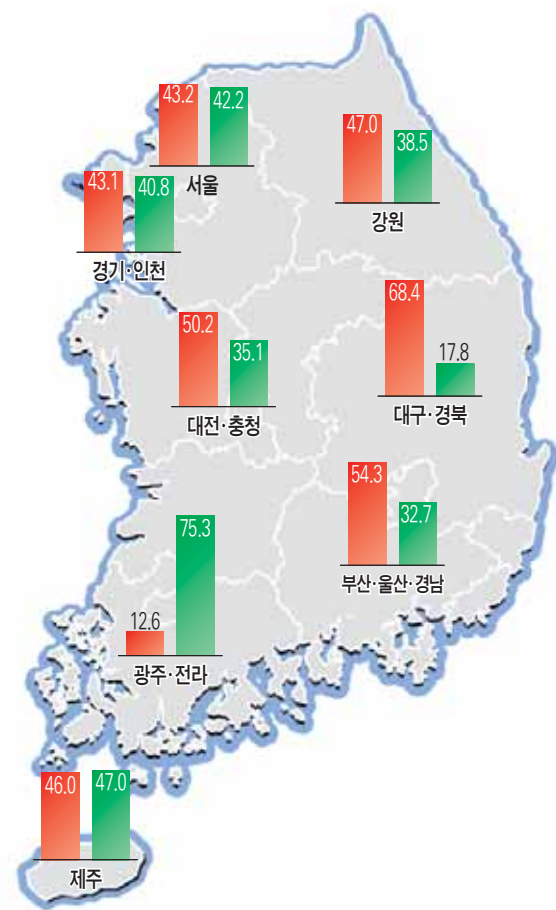


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75.3%의 지지율로 박 후보를 압도했다. 문 후보는 광주에서 79.7%, 전남에서 81.5%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지만, 전북에서 65.4%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. 이는 지난달 25일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문 후보의 지지율이 3%포인트 가량 빠진 것이다. 반면, 박 후보는 호남에서 12.6%의 지지율로, 후보 결정 이후 호남에서 줄곧 두 자릿수 지지율을 고수했다.

수도권과 함께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·울산·경남에서는 박 후보가 54.3%의 지지율로, 문 후보(32.7%)를 큰 차이로 앞섰다. 대전·충청에서는 박 후보 50.2%, 문 후보 35.1%, 강원은 박 47.0%, 문 38.5% 등이었다.

▷50대 이상 박, 19~49세 문=연령별로도 지지후보가 극명하게 갈렸다. 50대 이상에서는 박근혜 후보가, 19세~49세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. 연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▲19~29세(박 29.8%·문 53.8%) ▲30대(박 29.4%·문 54.2%)에서는 문 후보가 압도적 우세를 보인 반면 ▲50대(박 59.4%·문 28.8%) ▲60세 이상(박 66.1%·문 20.5%) 등에서는 박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. 40대에서는 박 41.0%, 문 45.3%

■ 대선후보 지역별 지지도 (단위:%)



3%로, 문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. 직업별로는 문재인 후보가 화이트 칼라와 학생 등에서 50%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며 박 후보를 압도한 반면, 박 후보는 농·임·어업, 자영업, 가충청에서는 박 후보 50.2%, 문 후보 35.1%, 강원은 박 47.0%, 문 38.5% 등이었다.

▷10명 중 2명, “지지후보 바꿀 수 있다”=지지후보 변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.1%는 지지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답했고, 21.1%는 '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 있다'고 답했다.

연령별로는 19~29세(40.4%), 30대(31.6%)에서 지지후보 변동 가능성이 높아 젊은층이 선거 막판 주요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. 40대(80.7%)와 50대(85.5%), 60세 이상(91.0%)은 지지후보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.

지지후보 변동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▲제주(26.9%) ▲서울(23.5%) ▲인천·경기(22.9%) ▲대구·경북(20.8%) ▲대전·충청(20.6%) 순이었다.

특히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지지후보 변동(15.8%)이 낮은 반면, 중도적·진보적 층의 지지후보 변동 가능성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27.6%, 24.7%로 높았다. 이는 보수층의 결집이 중도·진보 층에 비해 굳건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. 지지 정당별로도 새누리당의 지지층에서는 지지후보 변동 가능성이 15.4%로 낮은 반면,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지지층은 각각 23.3%, 21.3%로 높았다. 지지후보별로는 박 후보 지지층의 80.6%는 '계속 지지'를 보였고, 문 후보 지지층에서의 '계속 지지' 응답자는 74.3%였다.

하지만,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인 광주·전남·전북 등 호남과 제주, 19~20세의 젊은 층에서 투표 참여 의지가 전국에서 가장 낮아 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
이번 조사결과 18대 대선에서 투표를 '꼭 하겠다'는 응답자는 85.9%, '아마 할 것 같다'라고 답한 응답자는 8.2%로, 전체 응답자 중 91.1%가 투표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. 반면, '투표하지 않겠다' '아마 하 않을 것 같다'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.3%, 1.9%였다. '그때 가봐서'

투표 참여 의향 (단위:%)

의향	비율 (%)
꼭 할 것이다	85.9
아마 할 것 같다	8.2
투표하지 않겠다	1.3
그때 가봐서	2.8
하지 않을 것이다	1.9

오른 12월19일 치러질 제18대 대선에서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투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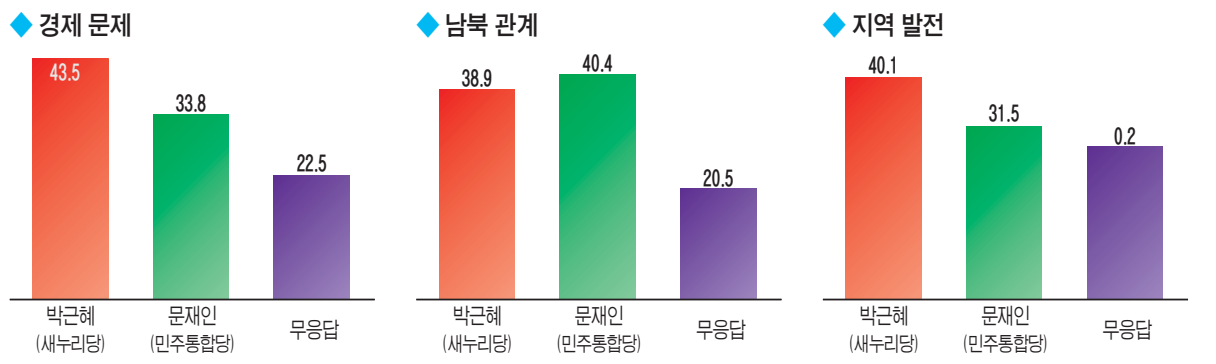
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인 광주·전남·전북 등 호남과 제주, 19~20세의 젊은 층에서 투표 참여 의지가 전국에서 가장 낮아 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
이번 조사결과 18대 대선에서 투표를 '꼭 하겠다'는 응답자는 85.9%, '아마 할 것 같다'라고 답한 응답자는 8.2%로, 전체 응답자 중 91.1%가 투표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. 반면, '투표하지 않겠다' '아마 하 않을 것 같다'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.3%, 1.9%였다. '그때 가봐서'

박 후보는 전 연령층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. 문 후보의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19~29세에서도 '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'을 묻는 질문에 45.8%가 박 후보 당선을 점쳤다.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응답자는 28.4%에 불과했다. 연령별 당선 가능성을 보면 ▲30대(박 43.0%·문 34.3%) ▲40대(박 45.4%·문 31.5%) ▲50대(박 56.9%·문 19.1%) ▲60세 이상(박 52.7%·문 10.3%)으로, 연령층이 높아질 수록 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■ 분야별 후보경쟁력



경제문제 박근혜·남북관계 문재인 앞서

후보 경쟁력

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제 문제와 국가위기 상황 대처, 지역발전 부문에서,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남북 관계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.

두 후보 가운데 '경제문제'를 가장 잘 다룰 후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.5%가 박 후보를 꼽았고, 33.8%는 문 후보를 선택했다. 무응답층은 22.5%였다.

'사회복지 분야'는 두 후보 모두 각

사회복지 분야에선

두 후보 동률 이력

각 40.1%로, 동률을 이뤘으며, 무응답층은 19.5%였다.

'남북 관계' 분야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5.3%로, 박근혜(40.6%) 후보를 앞섰고, '국가위기 상황 대처' 분야에서는 박 후보(44.1%)가 문 후보(37.0%)에 비해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.

'지역발전' 분야는 박근혜 후보가

40.1%로, 문재인 후보(31.5%)에 비해 우위를 보였고, 무응답층은 28.2%였다.

차기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우리나라 당면과제로는 ▲경기회복 및 경제활성화 20.5% ▲일자리 창출 및 실업문제 16.5% ▲물가안정 8.5% ▲서민을 위한 정책 추진 8.0% ▲복지정책 확대 6.6% ▲빈부격차 및 사회양극화 해소 5.2% ▲남북관계 개선 4.4% ▲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문제 3.0% ▲부동산 안정 2.2% 순이었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호남·제주 젊은층 전국에서 가장 낮아

투표 참여 의향

오른 12월19일 치러질 제18대 대선에서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투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.

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인 광주·전남·전북 등 호남과 제주, 19~20세의 젊은 층에서 투표 참여 의지가 전국에서 가장 낮아 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

이번 조사결과 18대 대선에서 투표를 '꼭 하겠다'는 응답자는 85.9%, '아마 할 것 같다'라고 답한 응답자는 8.2%로, 전체 응답자 중 91.1%가 투표 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. 반면, '투표하지 않겠다' '아마 하 않을 것 같다'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.3%, 1.9%였다. '그때 가봐서'

경북·경남·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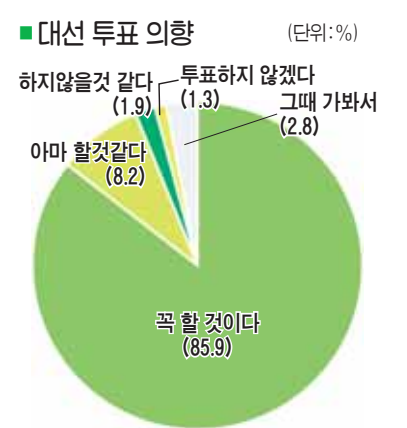
상대적으로 높아

라고 답한 응답자는 2.8%로 나타났다.

투표 참여에 강한 의지를 보인 지역은 ▲경북 93.5% ▲경남 92.3% ▲대구 91.7%로, 주로 박 후보의 강세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영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하지만, 문 후보의 강세 지역인 전남에서는 82.8%, 전북 81.5%, 광주 87.5%, 제주 82.4%로, 호남지역 유권자의 투표의지가 영남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.

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사회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실시한 광주일보 여론조사 중 '투표 참여 의향' 결과 광주 87.2%, 전북 84.8%, 전남



84.0%였던 점을 감안하면 호남에서 일주일 사이에 투표 참여 의지가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.

연령별로는 50대가 91.9%, 60대 이상이 92.3%로, 50대 이상에서 투표 의지가 높은 반면, 19세~29세는 74.3%, 30대 82.9%로 투표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박근혜 48.7%로 절반 육박... 문재인의 2배

문재인 당선 가능성 점치는 지역 호남 단 한 곳

당선 가능성

이번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 이번 여론조사결과 '당선 예상 후보'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8.7%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꼽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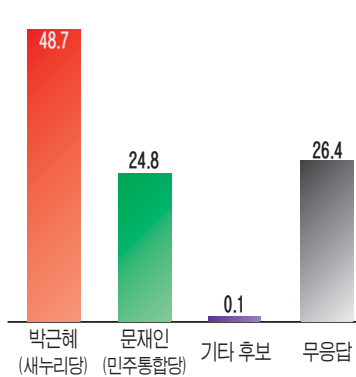
24.8%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고, 무응답층은 26.4%에 달했다. 무응답층이 높은 것은 아직까지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

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.

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쳤다. 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지역은 박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·경북(63.6%)이었고, 이어 ▲부산·울산·경남 56.9% ▲대전·충청 52.7% ▲강원 51.6% ▲인천·경기 48.5% ▲서울 47.7% ▲제주 44.7% 순이었다.

반면,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지역은 호남 단 한 곳으로, 48.1%였으며, 무응답 층이 32.5%로

■ 당선 예상 후보 (단위:%)



는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. 하지만, 호남에서 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응답자도 19.4%에 달했다.

박 후보는 전 연령층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. 문 후보의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19~29세에서도 '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'을 묻는 질문에 45.8%가 박 후보 당선을 점쳤다.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응답자는 28.4%에 불과했다. 연령별 당선 가능성을 보면 ▲30대(박 43.0%·문 34.3%) ▲40대(박 45.4%·문 31.5%) ▲50대(박 56.9%·문 19.1%) ▲60세 이상(박 52.7%·문 10.3%)으로, 연령층이 높아질 수록 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새누리 38% 민주당 32%... 남성 민주에 우호적

지지 정당

새누리당이 37.9%로 31.5%에 그친 민주당을 오차범위를 벗어난 6.4%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. 통합진보당은 2.2%, 진보정의당은 1.0% 지지율로 뒤를 이었다.

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에서 23.5%대 41.1%, 30대에서 23.4%대 37.9%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온 반면 50대에서는 51.2%대 25.6%, 60대 이상에서 59.3%대 15.7%로 새누리당이 압도한 것으로 조사됐다. 40대에서는 31.6%대 37.5%로 민주당이 근소한 우세를 보였다.

성별로는 새누리당은 비슷하게 나온 반면 민주당은 남성은 33.5%, 여성은 29.4%로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.

권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서울(37.1%대 32.4%), 인천·경기(36.7%대 32.1%), 강원(40.9%대 28.9%), 대전·충청(38.7%대 30.1%),

호남 제외 전 지역

새누리당이 우세

대구·경북(58.1%대 15.1%), 부산·울산·경남(44.4%대 21.7%), 제주(38.3%대 36.0%) 등 전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았다.

호남지역의 경우 새누리당은 10.9%, 민주당은 60.8%를 기록했다. 지역별로 광주(10.8%대 64.7%)와 전남(7.0%대 66.6%)에 비해 전북은 15.0%대 51.9%로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 연령대로 살펴봤을 때 새누리당이 20대 이하에서 16.4%의 지지율을 기록, 전국적 현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

지난 총선 투표 때 지지성향별로 살펴본 경우, 새누리당 지지자는 76.1%가 계속 지지의사를 보였고 5.4%가 민주당을 선택하는 등 지지 정당을 바꾸거나 부동층(17.9%)으로 돌아섰다. 반면, 민주당 지지자

는 68.6%가 계속 지지의사를 보였으나 9.4%가 새누리당 지지로 돌아섰고 18.6%는 부동층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. 새누리당 지지자의 충성도가 민주당 지지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해석이 가능한 조사 결과다.

지난 총선 때에는 투표권이 없었다가 이번 대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내기 유권자의 경우 새누리당 29.9%대, 민주당 36.4%로 민주당 지지자가 조금 더 많았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빛과 그림자

- 김중두



언제나 수준이 높아질까요??

광주일보 등 9개 신문사 전국 3015명 조사

표본오차 95% 신뢰수준에 ±1.8%포인트

조사 어떻게 했다

이번 대선 여론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실시했다. 표본 수는 3015명으로, 이 가운데 호남 표본 수는 310명이었다.

표본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올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성·연령·지역별 할당을 통해 추출했으며, 조사는 RDD

(Random Digit Dialing :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)를 이용한 집전화와 휴대전화 통화의 결합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9.2%였다.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1.8%포인트다.

한편, 조사를 의뢰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광주일보를 비롯한 경인일보·강원일보·부산일보·매일신문·대전일보·경남신문·전북일보·제주일보 등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일간지로 구성됐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광신대학교

'2013' 학부정시(가군)

원서접수 12.21(금)~26(수)

입학 문의 학부 062)605-1114 대학원 062)605-1115